

2018년 중앙교섭 조인식 · 산별교섭 법제화 노사공동선언

노사 공동위 구성, 금속 최저임금, 생명안전업무 직고용 등 합의... “한국 사회 산별교섭 전진 중요한 계기 될 것”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8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 날인했다. 노조와 사용자협회는 이날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조인식 인사말에서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은 최상의 합의는 아니지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합의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교섭 대표들에게 고생했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올해 중앙교섭은 산별교섭의 물꼬를 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공장 기업별 교섭이라



는 한계를 보이는 교섭을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변화의 물꼬를 트려 한다. 이번 노사공동선언은 한국 사회 산별교섭 전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인식 후 노조와 사용자협회는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노사공동선언은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합의했으나 노조파괴에 개입한 신쌍식 전 회장 퇴진 문제 등으로 올해 조인식에서 공식 날인 후 발표했다.

노조와 사용자협회는 공동선언에서 ‘산별교섭 인척과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성’을 선언했다. 금속산업 노사는 ▲산별교섭 인척과 제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 ▲사용자 교섭단 구성을 통한 산별교섭 참가와 산별교섭 인척화와 제도화를 위한 현행 노조법 전면 개정 ▲산별교섭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회는 지난 8월 14일 ▲산별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금속산업 최저임금 8,400원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상시 지속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 공동TF 구성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10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투표대상 조합원 18,879명 중 15,224명이 투표해(투표율 80.64%), 찬성 13,233명, 반대 1,910명, 무효 991명(찬성률 86.92%)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조파괴 부역자 권혁태, “나로 인해 누가 피해 봤나?”

대구지부, 대구노동청장 퇴진 요구 청장실 점거 단식 농성 ... “반드시 법정에 세워 응징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대구고용노동청장실을 점거하고 권혁태 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은 2013년 서울노동청장 임기 중 근로감독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 파견 판정을 뒤집고 삼성 자본의 노조파괴에 부역했다.

노조 대구지부 정종희 지부장, 박덕병 수석부지부장, 정민규 사무국장, 차차원 대구지

역지회장은 10월 11일 대구노동청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가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파괴하고 불법 파견을 은폐한 범죄자를 걸코 노동청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혁태 청장을 반드시 끌어내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 대구지부가 점거 농성에 들어가자 권혁태 청장은 농성단을 향해 “나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봤느냐”, “당신들이 검사도 아니

고 판사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냐”라는 망발을 내뱉었다.

노조 대구지부는 매일 저녁 대구노동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10월 17일부터는 농성단 전원이 단식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여는 10월 19일 국회 앞에서 ‘권혁태 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금속노조와 알루코그룹이 직접교섭 하자”

고강알루미늄지회 승리 울산·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 “박도봉, 노조는 파괴, 지식은 수십억 원 배당”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함께 알루코그룹 박도봉 자본에 고강알루미늄지회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공장 정상화를 요구했다.

노조 울산지부와 대전충북지부는 10월 15일 대전시청 남문 앞에서 ‘고강알루미늄 노동자 생존권 시수하자, 악질 사업주 알루코그룹 박도봉이 책임져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울산지부 조합원과 확대 간부,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지역을 넘어 연대 투쟁을 벌였다.

고강알루미늄지회와 회사는 올해 4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벌였다. 회사는 교섭 자리에서 물량이 없다는 핑계로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비용을 줄여 고정비 28억 원을 털겠다고 했다. 올해 6월 말 지회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노골적으로 고강알루미늄지회를 몰아세우고 있다.

고강알루미늄지회는 단체협약 회복과 노사 간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4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와 고강알루미늄지회는 결의대회에서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구안은 논의할 수 있지만,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가 공문을 보내 금속노조 위원장과 알루코그룹의 책임 있는 사람 사이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겠다”라며 “고강알루미늄의 상황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보자”라고 제안했다.

노조 울산지부는 고강알루미늄지회 단협 해지 철회와 본교섭을 열기 위한 투쟁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강수열 지부장은 “울산지부는 10월 19일 고강알루미늄지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부 차원의 투쟁을 벌인다. 고강알루미늄지회가 무너지면 울산지부가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희 고강알루미늄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노동조건을 막무가내로 낮추고 노조 활동을 가로막는 회사의 제시안을 받을 수 없다. 고강 노동자들은 평균 금속 27년에 통상임금 월 200여만 원을 받고 있다. 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양보만 요구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강태희 지회장은 “박도봉 회장은 청년실업 해소와 흡수저 극복을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수십억 원씩 배당금을 주고, 고강알루미늄 노동자는 악질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대전 대화동에 있는 알루코 3공장에 찾아가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들은 알루코그룹의 본사 격인 대전의 알루코 3공장과 서울사무소 앞에서 선전전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기아차 물류 심장’에 금속노조 깃발 올려

충남 현대모비스아산물류지회 설립총회 열어... “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한다”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는 현대·기아차 물류의 심장과도 같다. 단종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종의 부품 약 40만 개를 취급하고 있다.

아산물류센터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 공짜 노동, 고강도 노동의 온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약 7만 평에 하루에 9.5t 화물차 300여 대 분량의 물량이 쏟아지지만, 일하는 노동자는 채 300명이 되지 않는다. 매일 서너 시간의 잔업에 주말 특근까지

하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곳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업무 떠넘기기, 폭언, 차별 대우, 임금 차별, 부당하고 잦은 부서이동, 하청업체 사장·소장들의 지인 채용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부당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이런 차별을 끊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푸른 깃발 아래

단결하는 금속노동자로 다시 태어났다. 10월 14일 아산시 충남경제진흥원 대강당에서 163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모비스아산물류지회 설립총회를 열었다. 장종관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선봉에서 당당하게 투쟁하겠다”라고 선포했다.